

역사-비교언어학의 연구방법과 공통조어의 재구에 관한 연구

김 윤 한

(인어학과 교수)

0. 서 론

르네상스 이후 신학으로부터 해방되어 모든 학문적인 명제는 신학적 존재론 대신에 이성적인 추론에 의해서 유도되었다. 17, 18세기의 언어학자들 역시 Aristoteles나 Platon 시대와 같이 언어의 역사적 변화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예컨대 언어적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전단계의 언어상태를 구체적으로 연구하지 않고 관념에 의거하여 경험적으로 고찰했다. 특히 Port-Royal문법학파와 Condillac의 문법이론과 같이 문법은 형식논리학의 일부분이었으며 Humboldt는 일반언어이론을 정립했다.

18세기부터 독일에서는 아휘침총서 간행, 텍스트비판을 토대로 한 문헌출간 등 언어자료 축적과 문헌학의 발전으로 비교언어학의 기틀이 이미 마련되었다. 또 한편으로 유럽인들은 지리적 발견과 식민정책을 통해서 유럽지역 외의 언어와 문화에 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18세기 말기에는 인도와의 접촉을 통해 산스크리트와 접하게 됨으로써 인구어족을 가정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이 비교언어학 정립의 직접적 요인은 되지 못했으나 문헌학이 새로 발견된 인구어 개별어를 확고한 지식의 토대 위에서 고전어와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비교언어학자들에게 제공해주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직관보다는 구체적인 언어자료를 토대로 인구어족에 관한 연구가 Jones(1786)에 의해 시도되었고 Schlegel은 언어비교 방법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했으며 그의 *Über die Sprache und Weisheit der Indier*(1808)의 출판과 더불어 산스크리트에 대한 관심이 절정에 이르렀다. 비교언어학은 낭만주의적 배경의 토대 위에서 급진적으로 발전했고 Bopp(1816)가 동사형태 구조를 체계적으로 비교한 후부터 그 과학적인 연구방법이 확립되었고 그 결과 객관성을 지닌 학문으로서 한층 더 확고한 바탕 위에서 발전하게 되었다.

독일에서 비교언어학이 발전한 이유는 그 당시 비교언어학의 발전에 필요한 여건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잘 조성되었다는 데 있다. 학문의 발전은 사회 및 지적 발전과정으로 이해되는데 이에 필요한 전제조건으로서 연구과제 선택의 필요성과 선택된 과제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의 지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

기 위해서는 개인보다는 사회적 조직 즉 대학이나 연구소에서의 체계적인 연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 당시 독일인들은 자국어의 역사에 관한 관심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많았으며 Grimm은 게르만어학(역사언어학)을 정립했다. 19세기 독일대학은 질과 양적으로 급성장을 했으며 149 개의 인문학과가 설립되었다. 그중 20 개의 비교언어학과가 있었으며 62종의 어학 전문지가 발행되었다.

새로운 이론에 대한 호기심과 비교언어학과 외에도 문헌학과와 개별어문학과에 비교언어학의 이론이 소개되어 새로운 학문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고조되었다. 그 결과 많은 비교언어학자들이 배출되었으며 그들이 신설되는 대학에서 어학강의를 담당할 수 있었다. 풍부한 인적자원, 다량의 전문지를 통한 정보교환의 활성화 등 독일대학내에 비교언어학의 발전을 위한 훌륭한 연구풍토가 조성되었다.

역사-비교언어학은 Bopp(1816)에서 비롯되어 Schleicher(1861)에 의하여 체계화되었고 젊은이문법학과 시대에 그 절정을 이루었다. 역사-비교언어학의 주요 연구대상으로 음성학과 형태론 등 언어의 형식적인 면이 부상되었는데 그 이유는 자연과학적인 방법론의 수용으로 언어의 형식적인 면을 비교의 대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취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비교언어학의 주요과제는 비교의 토대가 되는 제3의 기준을 통하여 둘 또는 다수의 언어를 체계적으로 비교하는 작업인데 그 목적은 언어의 모든 체계를 비교하여 기술하는 데 있지만 실제로는 부분적인 영역만을 비교하게 된다.

역사-비교언어학은 언어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전제로 하는데 인구어 개별어간의 유사성과 차이점의 정도는 역사-비교언어학의 최적의 조건을 제시한다. 비교언어학(비교문법)이라는 용어는 언어체계를 비교한다는 관점에서 Schlegel(1808)이 처음으로 사용했다. 역사-비교언어학은 고도의 개연성을 지닌 가설로서 비교를 통해서 가상의 공통조어를 재구한 다음 다시 재구된 공통조어에서 서로 다른 개별어가 어떻게 분기되고 발전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역사-비교언어학의 이중적인 목표의 설정은 Platon의 이데아(국가편, 504 d)와 유사성이 있다.

인구어 역사-비교언어학자들은 꾸준한 연구를 통해서 잊혀진 것으로 여겨졌던 인류의 귀중한 유산을 다시 찾았다. 고고학자들이 삽과 곡괭이로 문화유적을 발굴해내듯이 역사-비교언어학자들은 단편적인 문헌을 토대로 하여 오천여 년 전 인구어 공통조어 시대의 어형을 재구했다.

언어는 간접적으로는 인류문화 전승의 매개체이며 직접적으로는 인간 의사표현의 도구이다. 그러므로 언어학은 다른 어떤 학문보다도 더 많이 그 시대에 유행하는 지적인 풍조를 반영한다. Cuvier(1817)의 비교해부학이론은 그 당시 언어학자들의 언어구조에 관한 연구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Lyell(1830)의 지질학원론은 증거자료 불충분으로 증명할 수 없는 전단계의 언어변화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어떤 요인에 의해서 설명하는 방법

론적 원칙을 언어학자들에게 제공했다. Schleicher는 Darwin의 진화론과 식물학의 영향을 받아 언어분기에 관한 수형계통설을 주창했다.

비교언어학의 가장 큰 특징은 언어를 정적인 체계로 취급하는 구조주의언어학과는 대조적으로 언어를 역사적 창조물로 보는 데에 있다. 그 결과 언어의 동적인 면 즉 언어변화에 관한 연구가 강조되었고 언어를 경험적이며 구체적인 맥락에서 고찰하게 되었다.

역사-비교언어학자들이 언어의 친족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적용한 비교방법은 거의 완벽하고 신빙성이 높다. 역사-비교언어학의 중심과제는 공통조어의 재구와 언어변화(음운법칙)관 연구 및 기술인데 필자는 언어의 통시적 연구가 철저하게 행해지지 않는 한 완벽한 공시적 연구는 기대할 수 없다고 본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세기는 실증주의 사조 즉 물리학의 절대적인 법칙과 자연의 기계적인 동일성에 관한 절대적인 관념이 풍미했는데 음운법칙에 예외가 없다는 점은 이문법학파의 언어이론의 근본원리는 이러한 시대적 사조에서 비롯되었다.

본 논문의 집필목적은 1) 역사-비교언어학의 정립과 발전과정을 약술하고, 2) 그 연구방법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에 친족관계를 확정하고, 3) 공통조어를 재구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데 있다. 필자는 특히 언어학을 정밀과학으로서 정립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과학적인 연구방법, 즉 비교방법의 발전과정을 분석하고 기술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1. 역사-비교언어학의 정립과 발전단계

19세기 언어연구 방법의 특징은 역사적 연구방법, 자연과학의 범주와 방법론의 수용, 진화로서의 언어변화의 목적론적 의의로 요약된다. 역사-비교언어학은 현상에 관한 관찰, 연구와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과학의 연구방법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 당시 Herder나 Goethe에 의한 낭만주의의 팽배로 민족의 뿌리를 찾으려는 운동의 일환으로서 공통조어의 재구와 자기 민족의 역사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민족국가 및 문화의 형성과 발전과정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인간 정신활동의 발전이 언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으므로 가장 오래된 문헌과 언어단계에 관한 연구가 중시되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후에는 종교적, 역사철학적, 민족적 동기에서 유발된 관심의 바탕 위에서 언어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항이 연구대상으로 대두되었다.

인구어의 가장 오래된 언어단계에 관한 연구가 역사-비교언어학의 중심과제로 부상되었으며 그 결과 친족관계의 규명, 공통조어의 재구, 언어변화 현상과 조음기관의 역할, 언어발전의 실체, 언어변화와 다른 영역에서의 변화와의 비교, 언어연구 방법론에 관한 고찰 등 일련의 일반적인 문제가 언어연구의 핵심과제로 대두되었다.

역사-비교언어학의 연구방법론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철학적 사조는

물론이지만 역사-비교언어학의 발전과정의 전체적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 역사-비교언어학은 다음과 같은 3 단계의 발전을 거쳐 완성되었고 1916년 Saussure의 구조주의 언어학이 정립될 때까지 100년 동안 세계 언어학의 주류를 이루었다.

1) 초기단계: Bopp, Rask, Grimm 등에 의해서 대표되며 낭만주의 철학과 부분적으로는 Humboldt의 언어철학에 토대를 둔다. Bopp는 *Über das Conjugationssystem der Sanskritsprache in der Vergleichung mit jenem der griechischen, lateinischen, persischen und germanischen Sprache*(1816)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역사-비교언어학의 이론을 정립했다.¹⁾

그는 동사의 형태분석만으로 친족관계를 확증했는데 그에 의하면 형태상으로 유사한 어휘가 동일한 어족에 속하는가를 확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음운상의 유사성만으로는 불충분하며 형태구조적 일치 즉 본질적인 동일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언어비교는 그에게는 수단에 불과했고 그의 주목적은 가장 오래되고 변화되지 않은 단순한 언어의 원시상태의 형태를 설명하고 인간정신의 본질을 규명하여 인간의 사고법칙을 창출하는 데 있었다. 그는 언어를 유기체적인 관점에서는 물론 물리적 측면에서 고찰함으로써 언어의 유기적인 체계를 기술하고 물리적, 기계적인 언어법칙을 발견하려고 시도했다(Bopp 1833, 52). 그는 친족관계가 확정된 언어의 비교를 통해서 문법형태를 직접 설명할 수 있거나 분석할 수 있는 언어의 원시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견해는 착오였으며 그의 후계자들은 언어의 역사적 발전과정만을 고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그는 추상적인 일반이론보다는 구체적인 언어자료를 통해서 거의 모든 인구어를 연구했다. 그는 비슷한 어휘의 비교에 의거하지 않고 Schlegel이나 Humboldt가 시도한 바와 같이 언어구조 특히 동사체계의 비교를 통하여 인구어의 친족관계를 입증했다.

그의 교착설에 의하면 명사나 동사의 모든 인칭어미는 동사어근으로 환원되는 완전한 뜻을 가진 독자적인 단어와 원래 대명사였던 조사와의 결합결과 즉 모든 인칭어미는 1, 2와 3인칭 대명사에서 유래되었다. 예컨대 Bopp가 적용한 어느 한 언어의 형태는 다수의 다른 언어의 형태를 통해서 설명되고 고찰될 수 있다는 새로운 방법은 역사-비교언어학 연구방법의 토대가 되었다.

Bopp의 형태구조의 비교방법은 친족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언어들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15년 Hrozný에 의해서 처음으로 발견된 히타이트어와 희랍어, 인도어, 라틴어 사이에서 단 하나의 음운대응 관계도 발견할 수 없었지만 Hrozný는 형태구조상의 일치를 바탕으로 하여 이 언어들간의 친족관계를 입증했다. 한편

1) Meillet는 Columbus가 인도에 가는 항로를 찾으려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듯이 Bopp는 인구어를 설명하려고 시도하다가 비교언어학을 정립했다고 했다(Meillet-Printz 1909, 276).

Bopp의 저서 어느 곳에도 그 당시의 독일에서 널리 사용되었던 *Indogermanisch*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없으며 새로 발견된 어족을 *Indoeuropäisch*라고 단 한 번 칭했는데 이 명칭이 독일을 제외한 유럽에 널리 통용되었다.

2) 확립단계: 역사-비교언어학은 19세기 중엽 Schleicher에 의해서 절정을 이루며 자연주의 철학을 근간으로 하는 언어이론이 정립되었다. 그는 자연과학자로서 확정된 사실을 체계화하고 일반적인 법칙을 유도해 내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다. 그는 언어의 2 단계 발전설을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언어는 유기체로서 그 자체의 내적 체계를 가지며 언어의 자발적 운동의 근본요인은 언어 속에 내재되어 있는 언어정신이고 이러한 언어정신이 언어체계의 유형변화를 일으킨다.²⁾

Compendium der vergleichenden Grammatik der indogermanischen Sprachen(1861)의 출판과 더불어 언어의 비교연구는 절정을 이루었다. Schleicher는 Hegel학파에 속하지만 그의 언어이론은 생물학 특히 식물학의 영향을 받았으며 Darwin의 진화론은 그의 언어사 전개 및 생물학적 언어연구 모델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그의 진화론적 언어관은 언어 변화에는 예외가 없다는 원칙을 근간으로 한다. 그의 언어이론은 역사-비교언어학의 제1 단계의 종식을 의미하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언어는 생물학적 실체로서 그 변화는 자연적인 진화이다.
- (2) 언어학자의 임무는 비교할 수 있는 언어요소 사이에 정확히 일치하는 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또 이것을 기초로 하여 인구어 공통조어를 재구하는 데 있다.
- (3) 고대 언어단계에 관한 고찰이 현대 언어단계의 연구보다 더 중요하다.
- (4) 언어의 의미보다는 형태에 관한 연구가 더 중요하다.

비교언어학이 발전함에 따라 그 방법론도 향상되어 외형상으로 불규칙적인 언어변화도 어떤 다른 음운법칙이 적용되었을 때 규칙적인 변화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Schleicher는 물론 Bopp, Pott, Curtius, Kuhn, Benfey 등의 연구를 비판적으로 수용했다. Schleicher와 초기 역사-비교언어학자인 Bopp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드러난다. 즉 Bopp는 인구어족의 친족관계를 입증하고 그 결과 우선적으로 인구어의 공통적인 특색을 강조했지만 Schleicher 시대에는 인구어학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은 이미 상식이 되었다. Schleicher의 특징은 인구어 음운변화에 주력했다는 데 있다. 특히 그의 수형계통설은 역사-비교언어학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현대 역사-비교언어학에서 다시 거론되고 있다. 또 한편 그는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식축적도 중요하지만 체계화작업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었다.

2) Schleicher는 언어의 2 단계설을 주장했는데 전단계에서는 언어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유추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나 후단계에서는 언어정신의 결여로 유추에 의한 언어변화가 일어났다고 했다.

Schleicher가 처음으로 시도한 공통조어의 재구는 언어가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변화한다는 사실을 토대로 한다. 언어변화의 원인이 규명되고 수형계통설을 통해서 친족관계가 명확해지고 한결음 더 나아가 언어변화에 관한 세부적인 지식과 재구방법이 확증되자 그는 짧은 우화를 공통조어로 번역하기도 했다.

3) 짧은이문법학파 시대: 이 시기에 이르러 낭만주의적 언어이론의 취약점을 극복하고 극단의 자연주의적 언어이론에 대한 비판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전세대에서 수집된 언어자료에 관한 새로운 엄격한 분석방법이 필연적으로 요구되었다. 짧은이문법학자들은 언어학의 기본원칙과 목적을 구체화하고 그에 상응하여 연구방법을 수정, 보완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낭만주의자들은 역사-비교언어학을 인구어 민족문화의 재구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했다. 예컨대 그들에 의하면 언어학의 과제는 언어자료를 공통조어의 재구와 정신사의 기술에 적용하는 데 있고 언어는 정신적 창조의 작품이다. 따라서 그들은 언어변화의 요인을 언어외적인 정신생활과 문화적 측면에서 찾았다.

Schleicher와 그의 선봉자들은 언어를 자연적 유기체로 취급하고 언어에 내재되어 있는 언어정신을 언어변화의 원인으로 보았다. 그들에 의하면 이러한 언어정신은 언어체계의 유형적 변화에 나타난다. 그러나 그 당시 역사언어학자들은 언어의 유형적 변화를 역사적으로 확증할 수는 없었다. 이와 반대로 짧은이문법학자들은 언어변화의 원인을 언어내적 요인에서 찾았다. 그들은 언어체계 그 자체와 기능이 언어를 변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이론은 Schleicher의 유기체이론과 유사하다. 그러나 그들은 Schleicher의 이론과는 반대로 언어비교에서 얻어진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언어변화에 관한 이론을 정립했다. 또한 그들은 언어의 2 단계 발전설을 부인했다.

짧은이문법학자들은 언어연구의 분석적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언어학을 정밀과학으로 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들의 언어연구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은유적이고 제어할 수 없는 학술용어를 배제하고 언어의 자율적인 존재를 부정했다.

(2) 언어재구보다는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언어에 관한 연구에 중점을 두었고 문자보다는 음성에 관한 연구에 우위성을 두었다.

(3) 언어학을 역사과학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언어의 동적인 면 즉 언어변화에 관한 고찰에 주력했다.

짧은이문법학자들이 음운법칙을 가장 중시하는 이유는 그 당시 풍미했던 학문적 가치는 현존하는 자료를 토대로 경험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명제에만 주어져야 한다는 실증주의 철학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들은 통시적 음운변화는 또 다른 변화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음운법칙을 음운상호간 영향의 결과로 간주했으며 음운변화의 예외현상을 상이한 음운법칙의 작용결과로 보았다. 그들은 음운법칙을 통해서 언어연구의 형식화와 연역적 방법론을 언어연구에 도입했다. 음운법칙의 발견과 더불어 언어학은 법칙과학으로서의 전제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음운법칙에는 예외가 없다는 언어연구의 기본원칙이 확정된 후부터 역사-비교언어학은 큰 발전을 보게 되는데 이 법칙은 1) 음운법칙의 예외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심리학의 개념인 유추작용을 도입했고,³⁾ 2) 언어변화에 예외가 없다는 원칙, 유추작용, 방언과 차용에 관한 고찰, 인구어 모음체계에 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모든 개별어의 비교문법이나 그 당시 일반적으로 인정되었던 많은 언어사실을 수정, 보완했다는 두 관점에서 역사-비교언어학의 발전에 기여했다.

젊은이문법학파의 언어연구 방법은 Bopp, Schleicher 등 전세대 역사-비교언어학자의 것과 근본적으로 크게 다른 것은 아니다. 그들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젊은이문법학자들이 음운법칙을 자연법칙과 같이 기계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할 경우 그것과 상보적 관계에 있는 심리적인 유추작용을 적용해서 언어변화를 설명한다는 데 있다.

그 당시까지 축적된 역사-비교언어학에 관한 모든 이론과 다량의 자료는 Brugmann과 Delbrück의 *Grundriss der vergleichenden Grammatik der indogermanischen Sprachen* (1897-1916)의 5권의 방대한 저서에 수록되어 있다.⁴⁾ 이 시기에 Paul은 최초의 언어학의 이론서인 *Prinzipien der Sprachgeschichte*(1880)를 출판했는데 여기에는 이미 역사-비교 언어학의 자아극복과 구조주의 이론이 내포되어 있다.

2. 역사-비교언어학에서 비교방법의 원칙

언어의 제현상을 과학적으로 고찰하고 체계화하며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이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개개의 경험을 통일된 원리에 따라 체계화하는 언어이론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언어학의 연구대상, 연구방향, 연구방법을 결정함으로써 언어학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법론은 복잡한 언어현상에 대한 체계적 지식을 얻기 위한 방법이며, 언어학의 급속한 발전의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

역사-비교언어학의 목적은 항상 진화하는 대상을 인식하는 데 있다는 당시의 역사주의 이론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역사-비교언어학 연구방법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역사적

3) 젊은이문법학자들이 언어변화의 심리적 요인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들을 유추론자라 부르기도 한다.

4) 이 책에는 인구어 분야에서 그 당시까지 축적된 모든 지식이 수록되어 있다. 그들은 많은 것 중에서 취사선택한 언어이론을 물론 수정, 보완하여 체계적으로 편집했기 때문에 이 책은 이 분야의 필독서가 되었다.

연구방법 즉 언어의 통시적 연구방법이다. Schleicher가 어느 사물에 관해서 그 진화의 역사를 모으면 그것에 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것과 같다고 했고, Paul이 역사언어학 외에 또 다른 과학적인 언어고찰 방법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 사실만 보아도 그 당시 역사주의의 영향력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다. 역사-비교언어학자들은 문헌에서 서로 다른 언어 사이에 비슷한 형태를 찾아 비교하여 귀납적으로 언어변화의 규칙성을 유도한 다음 공통조어의 재구를 가능하게 하는 음운법칙을 공식화하였고 또한 언어간의 친족관계의 정도를 규명했다.

비교와 역사는 서로 다른 개체들의 종합을 전제로 하며 언어자료의 비교는 비교만을 위한 비교가 아니었고 사실에 대한 설명과 보편화를 위한 것으로 유형학의 근본이 되는 방법이었다. 이러한 비교의 기준은 보편문법을 토대로 해서 작성된 이상화된 의미장의 불변형과 변이형의 목록이다. 이 목록을 근거로 해서 변이형의 유사성 정도에 따라서 언어를 분류한다.⁵⁾ 물론 언어간의 의미나 음운상의 절대적 대응관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관계는 체계적으로 연관된 유사성을 바탕으로 해서 확정된다.

이러한 유사성은 해당언어의 어휘, 의미, 문법 등의 체계비교를 통해서 확정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음성적인 면의 대응관계를 가정한 후에 의미쪽의 대응관계를 해명하거나 그 반대다. 예를 들면 친족관계가 불분명한 두 언어의 음성적인 면, 즉 표현체계만이 알려져 있을 때 이들 음성적으로 유사한 어휘간의 의미면에서의 대응관계를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확정할 수 있다(Amirova et al. 1975, übersetzt von Meier 1980. 266f.):

- 1) 두 음성형태의 의미가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적인 의미로 소급될 때 이 두 형태는 의미면에서 서로 대응관계가 성립된다.
- 2) 음성적으로 유사한 두 형태의 의미는 상이하지만 그와 유사한 두 언어의 어형들이 한 언어형태의 의미가 비교의 대상인 다른 언어의 형태의 의미와 동일함이 확증된다면 이러한 어형들은 서로 대응관계에 있다고 본다.
- 3) 음성적으로 유사한 두 형태의 의미가 서로 다르지만 그와 유사한 두 언어의 어형들이 서로 다른 의미가 이러한 다른 유사한 어형들과 동일한 의미에서 생성되었음이 입증된다면 이러한 어형들은 서로 대응관계가 있다고 간주된다.

언어형태의 비교를 통해서 의미의 대응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작업이 바로 어원론⁶⁾이며 이것은 대응관계에 있는 언어형태를 총괄하는 기준이 되는 의미체계로 성립된다. Pott의 *Etymologische Forschungen auf dem Gebiete der indogermanischen Sprachen*

5) 보편문법은 언어비교에 필요한 실제적 자료를 제공한다. 예컨대 보편문법이 제공하는 의미목록(내용)을 토대로 해서 개별언어간의 변이형을 비교하여 친족관계를 규명한다.

6) 어원론은 의미장내에서의 체계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요소의 총체에 기초하며 둘 또는 그 이상 언어체계의 비교를 통해서 이 요소들간의 의미관계를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비교된

(1883-36)에서 체계화된 어원론은 의미형성과 의미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어원론에 바탕을 둔 연구결과는 보편문법에 의한 것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

- 1) 어원론에서의 의미체계 비교를 통해서 해당언어간의 형태상의 연관성이 제시되지만 보편문법은 그러한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 2) 어원론의 연구대상이 되는 언어단위 즉 어휘는 문헌에 기록된 언어체계에서 선정되는 데 반해서 보편문법은 이러한 단위를 실존하는 언어체계가 아니고 이상화된 의미나 개념의 체계에서 선택한다.

어원론을 통해서 체계의 비교가 가능해졌으며 또 한편 상이한 언어간의 의미론적 연관관계를 개관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어원론 연구방법의 특성 때문에 다음과 같이 상이한 두 고찰방법이 가능하다(*ibid.* 268-276 참조):

1) 언어간의 유사성 정도는 당해언어의 내적 변화의 특성과 물질적 요소의 변화에 의해 서가 아니라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문화적 공통성의 정도나 영토의 접근거리 등에 따라서 확정된다. 따라서 유사성 정도의 차이는 영향을 주는 요인의 양적인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언어연합이나 언어체계간의 간섭현상 등이 이 경우에 속한다. 이러한 양적인 요인과 어원적으로 관련되는 언어요소의 특성은 일련의 특정언어내에서 간섭현상의 관계와 그 특성에 관한 중요성의 순위를 확정하는 데 필수적인 요인이다.

2) 당해언어의 물질적 요소의 내적 변화의 특성이 중시되는데 이 경우에는 실체적인 친족성에 관한 탐구가 주목적이 된다. 이러한 실체적인 친족성은 친족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문화공동체를 확정하는 데 기본요인이 된다.⁷⁾ 실체적인 친족성의 유사성은 당해언어간의 계보적 분류와 공통조어의 재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차용된 어휘를 제외한 본래의 순수한 어휘만의 비교에 의해서 결정된다.

또 한편 실체적인 친족성의 정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상호간 귀납적 관계에 있는 1) 비교될 언어체계간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차용되지 않은 본래의 어휘형태소 및 문법형태소 목록의 대응관계를 확립하고, 2) 비교될 언어간의 문법체계의 대응관계를 연구하고, 3) 비교될 언어에 나타나는 음운법칙에 대해서 고찰한다는 등의 방법이 적용한다.

공통조어를 재구한다는 것은 친족관계에 있는 여러 언어가 파생된 어떤 특징의 언어체계(또는 그 일부분)의 이론적 기술을 뜻하는데 이러한 공통조어는 다음에 열거한 어휘론, 형태론, 문법론과 음운론 등 여러 하위체계의 비교를 통해서 재구된다:

상이한 체계에 속하는 요소들간의 의미상의 연관관계를 확정할 수 있다.

7) 이 경우 양적인 대응관계는 친족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중시되지 않는다.

어휘론: 차용어를 배제한 후 유사한 언어의 서로 대응하는 문화적 발전단계에서 전형적인 단어를 포함하는 어휘의 의미장을 확정한다. 이 경우에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어휘는 1) 친족관계를 표시하는 용어, 2) 신체의 부분을 지칭하는 어휘, 3) 신의 명칭, 4) 지방의 개념이나 자연현상을 표현하는 어휘, 5) 가축이나 들짐승 등의 명칭, 6) 식물의 명칭, 7) 가구나 건물 등의 명칭 등이다. 이 외에도 대상과 현상의 특성을 나타내는 특수한 동사나 형용사 등이 있는데 관능적인 지각, 운동과 행동을 표현하는 동사나 단순한 특성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기본어휘에 속한다.⁸⁾ 여러 상이한 언어의 어휘의미장을 연대순으로 비교하면 언어분기의 특성을 개괄하고 그 언어들간의 친족관계의 정도를 추정할 수 있다.⁹⁾

형태론: 위에서 언급된 공통조어의 재구에 관한 가설은 비교대상이 될 공통어휘(동계어)뿐만 아니라 형태소의 유사성에 관한 영역까지 확대되어 한층 더 신빙성을 얻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 당해언어의 친족관계 정도는 공통적인 형태집합의 공통어휘 집합에 대한 비례관계로 확정된다. 예컨대 계통론상의 관점에서 공통적인 형태소의 수가 공통어휘의 수에 비례해서 많으면 친족관계 정도는 멀어지고 이와 반대로 공통어휘의 수가 공통적인 형태소의 수에 비례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친족관계 정도가 커진다. 언어분기 시기의 확정과 공통조어 체계의 재구는 문법형태소와 어근형태소 체계를 취급함으로써 한층 더 구체화된다.

다음과 같은 4개의 체계가 있다고 가정하자(ibid. 270):

A	B	C	D
\sqrt{a}	\sqrt{a}	\sqrt{c}	\sqrt{c}
\sqrt{b}	\sqrt{b}	\sqrt{d}	\sqrt{d}
\sqrt{e}	\sqrt{f}	\sqrt{f}	\sqrt{e}
$\sqrt{1}$	$\sqrt{2}$	$\sqrt{3}$	$\sqrt{4}$

이 경우에 체계 AB와 CD는 공통어근, 다시 말해서 AB는 \sqrt{a} 와 \sqrt{b} , CD는 \sqrt{c} 와 \sqrt{d} 를 공유한다. 공통어근은 위에서 언급한 체계의 평균집합을 나타낸다(예컨대 $A \cap B = \{\sqrt{a}, \sqrt{b}\}, \cap AD = \sqrt{e}$ 등). 또 한편 모든 집합, 모든 체계는 $\sqrt{1} \in A$ 등과 같이 다른 집합에 함유되지 않은 특수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분배를 다음과 같이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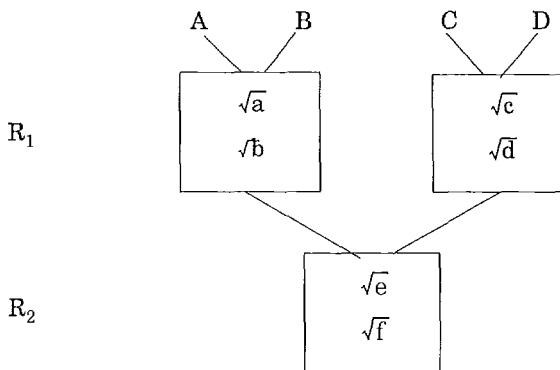
8) 어떤 관계를 나타내거나 복합적으로 구성된 형용사나 행위의 미세한 차이를 표현하는 동사는 발전된 문명단계에 형성된 어휘다.

9) 친족관계를 지칭하는 용어, 신체부위의 명칭, 신의 명칭이나 지명 등을 수를 표시하는 낱말보다 먼저 그리고 수사는 곡물이나 가구의 명칭보다 훨씬 이전에 형성되었다.

식화할 수 있다.

\	a	b	c	d	e	f	1	2	3	4
A	+	+	-	-	+	-	+	-	-	-
B	+	+	-	-	-	+	-	+	-	-
C	-	-	+	+	-	+	-	-	+	-
D	-	-	+	+	+	-	-	-	-	+

위의 행렬에서 체계 A는 B와 체계 C는 D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상응하여 그것들은 두 개의 재구형으로 분류된다. 그 반면에 체계 BC와 마찬가지로 체계 AD는 어근형태소의 수가 작기 때문에 연대적으로 한층 더 큰 차이가 난다. 따라서 위에 열거한 네 체계는 두 단계로 재구되는데 이 경우에 어근형태소 \sqrt{e} 와 \sqrt{f} 는 네 체계의 원형을 나타낸다. 위의 사실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ibid. 271):¹⁰⁾



언어의 분기시점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Swadesh(1948)의 연대언어학과 Schrader (1883)의 어문화사적 방법이 적용된다. 전자의 이론적 근거는 언어변화율이고 후자는 어휘가 존재하면 반드시 그 어휘가 표상하는 사물이 존재한다는 원칙을 전제로 한다.

영어와 독일어 기본어휘 다섯 개를 비교하면(animal, four, head, I, sun-Tier, vier, Kopf, ich, Sonne) 동계어휘의 보존율은 60%이다.¹¹⁾ 따라서 그 분기연도는 1561년 전. 약 A.D.

10) 이 도식은 역사-비교언어학적 분석방법을 나타내는데 실제의 연구에서는 몇십 개의 언어에서 수백 개의 어근형태소를 분석해야 한다. 이와 같이 친족관계의 정도를 규명하는 방법은 집합 이론에 의한 것이다.

11) 소수의 동계어휘 비교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오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차의 범위를 줄이기 위

450년경이다.

$$t = \frac{\log C}{2\log r} = \frac{\log 60\%}{2\log 85\%} = \frac{0.511}{2 \times 0.163} = 1561$$

어문화사적 방법론의 태두리 안에서 금속명칭에 관해서 고찰을 해보면 비교적 통일된 인구어 공통조어가 언제까지 사용되었는가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 대다수의 개별어는 동일한 어근에서 파생된 금(**gher*-)과 은(**arg*-)이라는 두 귀금속의 명칭을 가지고 있다. 두 귀금속의 명칭이 대부분의 인구어 개별어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구어 공통조어 시대에 이미 그들이 두 귀금속을 알고 있었음을 뜻한다. 그 반면에 귀금속이 아닌 구리, 청동, 철 등의 명칭은 모든 개별어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다. 위의 두 사실을 비교해 보면 인구어 민족이 공통조어를 사용했던 시대는 실제로 금속기 시대 이전이었음이 분명하다. 다시 말하면 인구어 공통조어는 늦어도 B.C 2000년경 금속기 시대가 오기 전에 이미 개별어로 분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김윤한 1988, 131f.).

문법론: 문법형태소는 모든 언어에서 하나의 완성된 목록으로 존재한다. 언어분기의 시기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인 문법형태소뿐만 아니라 문법범주의 목록과 체계에 관한 고찰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문법범주는 어미변화 체계(곡용과 활용)와 조어법으로 세분된다.¹²⁾ 어미변화 체계는 당해언어에서 하나의 완전한 체계로서 나타나는데 어떤 언어의 곡용과 활용체계중 어느 것이 존재하는가는 친족관계의 정도를 확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예를 들면 곡용체계가 라틴어, 러시아어, 산스크리트에는 존재하는데 프랑스어에는 없다). 다시 말해서 이중 어느 범주의 존재여부는 일정한 연대순으로 당해언어의 배열을 가능하게 한다.¹³⁾ 이로써 순수한 문법체계만을 바탕으로 당해언어를 연대순으로 배열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제시되었다. 따라서 어휘적 가설과 문법적 가설은 상호간의 비교를 통해서 결합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한층 더 확증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 물론 문법형태소간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문법적 가설 그 자체만으로도 정확도를 높이고 그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특히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Amirova et al., 1975, übersetzt

위해서 정선된 다수의 기본어휘를 비교하여야 한다.

12) 언어의 친족관계를 추정하는 데는 대체로 개별어의 조어방법은 산만하고 불명료하기 때문에 완전한 체계로서 존재여부가 분명한 어미변화 체계의 비교가 중요시된다. 또한 조어법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어근비교의 방법과 유사하다.

13) 어휘론의 경우 특정어휘의 존재여부가 의미장의 연대순 배열을 가능하게 하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다.

von meier 1980, 272):

- 1) 어미변화 체계가 의미목록뿐만 아니라 형태소목록과 일치할 경우.
- 2) 어미변화 체계가 형태소목록과 일치하지만 의미목록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 3) 어미변화 체계가 의미목록과 일치하지만 형태소목록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 4) 어미변화 체계가 의미목록이나 형태소 목록과도 일치하지 않지만 어느 한 언어의 어미나 어근이 다른 언어의 어미변화 목록과 일치할 경우.
- 5) 어떤 문법적인 일치도 존재하지 않을 경우.

위에서 열거한 사항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친족관계의 정도를 확증할 수 있다:

- 1) 1의 경우는 2의 경우보다 더 밀접한 친족관계의 정도를 나타낸다.
- 2) 2의 경우는 4의 경우보다 더 밀접한 친족관계의 정도를 나타낸다.
- 3) 4의 경우는 5와 3의 경우에서 문법적인 차원에서는 아무런 일치가 없지만 어휘적인 면에서 친족관계가 성립된다. 이러한 경우 언어간의 친족관계가 입증되면 문법형태소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특별한 원인이 명백히 규명되어야 한다.

1의 경우와 같이 두 목록이 일치한다면 그것은 동일한 문법체계를 가진 언어를 의미한다. 또한 어떤 언어체계내에서 서로 상이하지만 부분적인 어근목록의 일치가 입증된다면 이러한 목록은 일반적으로 언어체계의 동일성을 입증하는 내적인 척도로 사용되지만 완벽한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어근형태소의 비교에 의해서 확정된 친족관계의 정도는 문법체계의 비교를 통해서 한층 더 명료해진다. 그러나 문법체계의 비교 그 자체는 완전한 신빙성을 가지지 못하며 다만 어근형태소의 비교에 의한 결과가 분명하지 못할 경우에만 결정적 역할을 한다. 따라서 문법적인 대응관계는 해당언어간의 오랜 친족관계와 언어체계의 동일성의 정도를 확증하는 수단이며 또한 어근형태소의 분석에 의한 친족관계의 정도를 한층 더 염밀하게 규정하는 방법이다.

음운론: 언어의 계통적 분류와 공통조어의 재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음운대응 관계인데 이것을 토대로 음운법칙을 유도해 낼 수 있다. 음운법칙¹⁴⁾은 단어

14) 현재 음운법칙의 기술, 원인 등에 관해서 완벽하게 기술된 어족은 없다. 음운법칙 그 자체는 원래 Pott와 Bopp의 어원연구에서 발견된 부수적 현상인데 역사-비교언어학의 기본과제가 되었다. 음운법칙의 이론도 최근 변형생성문법의 이론발전과 같이 여러 단계의 수정, 보완을 거쳐 정립되었다. 그 원인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언어 그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모순성에 있겠지만 연구방법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방법론의 개선에 따라 언어학자들이 언어자료를 한층 더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관찰하여 언어사실과 더욱 접근하는 이론을 세울 수가 있었다. 음성생리학적, 심리적, 자연적, 역사적, 사회적 요인 등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는 물론 형태소에도 적용되며 유사한 단어, 어근, 접사의 목록의 분석, 비교를 통해서 유도된다. 이 경우에 차용어를 제거한 조어에서 전승된 어휘와 이것을 형태론적으로 분석하여 일은 형태소만이 고찰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어휘나 형태소의 부류와 하위부류의 알파벳순의 배열을 바탕으로 두 비교된 언어간의 친족관계에 있는 언어단위의 표현수단인 음소목록을 추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친족관계에 있는 언어단위의 체계적인 비교를 통해서 당해언어의 음소체계를 재구할 수 있다.

이러한 체계적인 비교에서 추출된 결론은 의미를 지닌 두 언어단위에만 제한되지 않고 당해언어의 모든 표현체계 즉 음소체계와 관련된다. 이러한 추론은 예를 들면 어떤 언어에서 단어의 첫음이 유성파열음이면 그것은 다른 언어의 동일한 위치에서 조음장소가 동일한 유성파열음으로 나타난다는 형식을 취한다(*ibid.* 273). 음운법칙은 이러한 방법으로 유도되며 언제나 논리적으로 “만약… 한다면, … 하다” (“wenn... so...”)라는 대단히 복잡한 판단형식을 취한다.¹⁵⁾

음운법칙은 내용상으로 1) 음운이나 음운군에 관한 정보, 2) 단어, 형태소 또는 음절내에서 이러한 음운이나 음운군의 위치에 관한 정보, 3) 당해음운이나 음운군이 나타나는 어느 한 언어나 여러 언어에 관한 정보(*ibid.* 273) 등을 제공한다.¹⁶⁾

친족어에서 어원상으로 관련이 있는 동계어휘의 어근과 접사의 음운형태를 분석해 보면 이것들이 모두 특정의 음운법칙의 적용결과로 공통조어에서 파생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 어원론에서 어근이나 접사의 음운형태가 규칙적인 발전, 차용 또는 예외현상의 결과인지는 당해어휘 의미의 변천사를 설명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예컨대 음운법칙은 모든 어근의 정확한 분류를 가능하게 하고 동시에 의미의 변천사를 파악하기 위한 형식적 기준이 된다.

음운법칙이 문법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중요하다. 접사와 어근의 형식적 변화는 일련의 문법현상의 변화를 야기시키는데 특히 다음 사항은 형태론체계의 변화에 중대한 의의를 지닌다(*ibid.* 275):

- 1) 음소 또는 음소군은 강조되지 않은 위치에서 음운법칙에 따라 소멸될 수 있다. 어느 한 단어의 접사가 소멸되었다면 당해언어의 형태론체계에 변화가 일어난다.
- 2) 접사를 형성하는 음소 또는 음소군은 음운법칙에 따라 그 음운형태가 변화되어 특정의 접사는 통합되든지 이와 반대로 형식상으로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그 결과 당해언어

거의 모든 요인을 토대로 음운변화의 원인을 규명하려고 노력했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는 얻지 못했고 결국 언어에 고유한 법칙이라는 막연한 결론에 이르고 말았다.

15) 따라서 음운법칙은 논리적으로 존재양화사 (“es gibt...”)로 간주되는 음운대응과 구분된다.

16) 이에 반해서 공통조어에서 파생되지 않은 유사한 형태의 어근이나 접사의 음운형태는 예외현상에 속하거나 차용된 것이다.

의 형태체계에 변화가 일어난다.

3) 음소는 음운법칙에 따라 단어내에서 형태소나 음절의 위치를 전환시키는데 이러한 구조적 변화나 단순화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형태론체계의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문법형태는 음운법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음운법칙은 형태론체계 변화의 시기를 추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위에서 논한 사항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른다:

음운법칙의 도움으로 비교되는 두 언어 또는 다수의 언어에 관한 음운체계를 기술할 수 있는데 음운법칙에 관한 기술은 예외현상 때문에 대단히 복잡한 양상을 띤다. 음운법칙은 어원의 체계적 분류를 가능하게 하는 형식적 기준인 동시에 또한 의미변화의 형식적 한계를 제시한다. 어근이나 접사의 형식적 변화가 일련의 문법적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음운변화는 문법적인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예컨대 음운법칙은 형태체계 변화의 시점을 확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음운법칙은 현재 언어간의 친족관계 규명에 관한 최상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기 때문에 역사-비교언어학의 분석과 기술방법을 평가하는 형식적 척도로 사용되는 방법론적 마지막 단계로서 역사-비교언어학 방법론의 절정을 이룬다.¹⁷⁾

지금까지 논술한 역사-비교언어학의 방법론상의 발전단계를 1) 어원론 → 2) 어휘적 대응 → 3) 어근과 접사의 대응 → 4) 문법체계의 대응 → 5) 음운대응 → 6) 음운법칙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역사-비교언어학은 언어내적 요인에 의해서 분기된 언어들간의 친족관계 정도를 규명하고 공통조어의 재구를 가능하게 하는 대단히 복잡한 언어이론임에 틀림없다. 비교방법은 수형계통설과 더불어 원칙적으로 언어의 계통적 분류의 토대가 된다.

음운법칙은 Rask(1818)에 의해서 처음으로 발견되었고 Grimm(1822)에 의해서 공식화되었다. Grimm에 의하면 언어형태가 동일하다는 것은 언어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야기되는 규칙적인 차이점을 내포해야 하므로 형태상으로 일치한다고 해서 동일한 어형으로 볼 수 없다. Schlegel은 음성적으로 완전히 일치하는 어휘만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했고 Rask는 어휘가 서로 다르더라도 그 다름이 일정한 대응관계에 있다면 그것을 동일한 것으로 보았는데 Grimm은 어휘가 오직 일정하게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어휘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경험상으로 입증된 언어변화의 규칙성이 자연과학의 법칙과 동일한 기계적인 법칙으로 인식되었다.

17) 언어비교의 이론으로서 음운법칙은 이것을 실제로 언어비교에 적용했을 경우에는 많은 어려움에 부딪치게 되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경험과학으로서 언어학의 연구대상인 언어에 관한 모든 경험적인 연구가 완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3. 공통조어의 재구

Jones는 1786년 산스크리트의 발견을 계기로 인도어와 유럽제어간의 친족관계를 믿게 되었고 현존하지는 않으나 이 언어들의 모체가 되는 언어 즉 인구어 공통조어가 존재했을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이러한 Jones의 가설은 인구어 역사-비교언어학의 가장 중요한 연구목적이 되었다. 비교언어학의 연구방법론이 발전함에 따라 언어비교의 방법도 발달하여 비교연구 결과의 정확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자 이 언어들간의 유사 이전의 공통적인 역사 예컨대 인구어 공통조어의 재구에 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공통조어를 재구하려는 시도는 Schleicher에 의해서 비롯되었는데 그의 재구방법은 과학적이었고 취급된 자료도 광범위했다. 그는 그의 주저서 *Compendium der vergleichenden Grammatik der indogermanischen Sprachen*(1861)에서 공통조어의 재구에 관한 이론을 전개했는데 이것은 Bopp의 대저서 *Vergleichende Grammatik des Sanskrit, Zend, Griechischen, Altslavischen, Gothicchen und Deutschen*(1833-52) 이후 인구어 비교언어학사상 제2의 전환기를 의미한다.

Schleicher가 공통조어를 재구하기 위해서 제시한 이론 및 방법은 현재에도 그 분야에서 기본원칙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친족관계에 있는 언어의 형태비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교의 대상이 된 두 언어의 분기 이전의 가상적인 기본형태를 찾거나 시대상으로 동일한 발전단계에 속하는 두 언어의 음운형태를 찾아내는 작업이다. 현재 알려진 다수의 언어는 시대적으로 서로 다른 단계에 속하기 때문에 언어를 비교하기 이전에 가능한 한 이러한 시대적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Krahe 1970, 37).

Schleicher(1861-62, 8)에 의하면 공통조어는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강력한 언어정신 때문에 변화하지 않는 속성을 가졌고 그 음운체계는 개별어의 것보다 단순하나 체계적이며 다음과 같이 15 개의 자음과 9 개의 모음으로 성립되었다:¹⁸⁾

자 음			모 음					
k	g	gh	j	s	v	a	i	u
t	d	dh	n	m	r	aa	ai	au
p	b	bh				âa	âi	âu

18) Schleicher에 의하면 공통조어의 음운체계는 공통조어가 어군으로 분기될 시기에 15 개의 자음 (회립어와 유사함)과 9 개(산스크리트와 유사함)의 모음으로 성립되었으며 초기에는 한층 더 단순하여 기식음, 장모음, 이중모음 등을 존재하지 않았다.

Schleicher는 공통조어의 어형을 재구함에 있어서 주로 산스크리트에 의존했는데 그 이유는 그 당시 다른 모든 언어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산스크리트가 다른 인구어에 비해서 가장 오래된 언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에 의하면 공통조어는 체계적이고 굴절어이며¹⁹⁾ 9 개의 격, 3 개의 수, 3 개의 성과 다양한 동사변화 체계를 소유하고 있었다.

Schleicher는 그가 재구한 인구어 공통조어를 실제로 존재했던 어형으로 간주했고 다음과 같이 공통조어로 우화를 번역했다:

[Das] Schaf und [die] Rosse.

[Ein] Schaf, welchem Wolle nicht war (ein geschorenes Schaf), sah Rosse, das [einen] schweren Wagen fahrend, das [eine] grosse Last, das [einen] Menschen schnell tragend.
 [Das] Schaf sprach [zu den] Rossen: [Das] Herz wird beengt [in] mir (es tut mir herzlich leid), sehend [den] Menschen [die] Rosse treibend.

[Die] Rosse sprachen: Höre, Schaf, [das] Herz wird beengt [in den] gesehen-Habenden(es tut mir herzlich leid, da wir wissen): [der] Mensch, [der] Herr macht [die] Wolle [der] Schafe [zu einem] warmen Kleide [für] sich und den Schafen ist nicht Wolle(die Schafe aber haben keine Wolle mehr, sie werden geschoren; es geht ihnen noch schlechter als den Rossen).

Dies gehört habend bog (entwich) [das] Schaf [auf das] Feld(es machte sich aus dem Staube).

Schleicher의 재구(1868):

Schleicher의 번역은 고대 인도어의 모음체계가 원래 인구어 공통조어의 모음체계가 아

Avis akvāsas ka.

*avis, jasmin varnā na ā ast, dadarka akvams, tam, vāgham garum vaghantam,
 tam, bhāram magham, tam, manum āku bharantam.*

*avis akvabhjams ā vavakat: kard aghnutai mai vidanti manum akvams
 agantam.*

*Akvāsas ā vavakant: krudhi avai, kard aghnutai vividvant-svas: manus patis
 varnām avisāms karnauti svabhjam gharmam vastram avibhjams ka varnā na
 asti.*

Tat kukruvants avis agram ā bhugat.

19) Schleicher는 굴절어의 생성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Bopp의 이론을 수용했다. Bopp에 의하면 인구어 어근은 한 음절이고 인구어에는 연결의 기능을 가진 어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구어는 유기적이고 문법을 소유한다. 이러한 유형에서 조어법의 기본원칙은 동사와 대명사 어근의 결합에 있다.

니라는 사실이 규명되기 이전에 재구된 것이다.

Hirt의 재구(1938):

젊은이문법학파의 언어이론을 토대로 한 텍스트인데 두번째 슈와(β) × ˜b가 발견된 이후에 재구되었다.

owis ek'wōses-kʷe.

owis, jesmin wylēnā ne ēst, dedork'e ek'wons, tom, woghom gʷyrum weg-hont̪p, tom, bhorom megam, tom, gh'ymon̪t̪ ðk' u bheront̪p. owis ek'womos ewywekʷet: k'ērd aghnutai moi widontei gh'ymon̪t̪ ek'wons ag'ont̪p. ek'wōses ewywekʷont: k'ludhi, oweil, k'ērd aghnutai widontmos: gh'ymo, potis, wylēnām owjōm kʷneuti sebhoi gh'ermom westrom; owimos-kʷe wylēnā ne esti. Tod k'ek'ruwos owis ag'rom ebhuget.

Peters의 재구(1980):

이 텍스트는 후두음이론을 토대로 하여 재구된 것이며 H(h₁, h₂, h₃)는 후두음을 표시하는데 등근팔호 안에 있는 것은 그 존재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그리고 사선의 양쪽에 있는 숫자는 어느 후두음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나타낸다. 위쪽에 작은 글씨로 표기된 h는 유기유성파열음을 표시한다. 후두음의 실제적인 음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매우 다양한데 이 텍스트에서는 h₁는 [ç], h₂는 [x], h₃는 [x_w]라는 Cowgill(1973)의 이론을 따랐다.

h₂ʒoŋis (h₁)ek'yuōskʷe

h₂ʒoŋis, (H)jesmin h₂uŋjh₁₂neh₂ ne (h₁)eh̄est, dedork'e (h₁)ek'yuons, tom, yugʰom gʰerh₂um yegʰont̪p, tom, bʰorom megoh₂t̪p, tom, dʰgʰemon̪t̪ HoHk'u bʰeront̪p. h₂ʒoŋis (h₁)ek'yuobʰos (h₁)e yeykʷe(t): k'ērd h₂gʰnutoj moi yidŋtej dʰgʰemon̪t̪ (h₁)ek'yuons h₂eḡont̪p. (h₁)ek'yuōs (h₁)e yeykʷe: k'ludʰi, h₂ʒoŋi! k'ērd h₂gʰnutoj yidŋtbʰos: dʰgʰemō(n), potis, h₂uŋjh₁₂neh₂t̪p h₂ʒeŋjōm kʷneuti sebʰoj gʷh̄ermom yestrom; h₂ʒeŋibʰoskʷe h₂uŋjh₁₂neh₂ ne h₁esti. Tod k'ek'luuōs h₂ʒoŋis h₂eḡrom (h₁)ebʰuge(t).

공통조어를 재구하려면 개별어의 정확한 기술뿐만 아니라 그 언어의 역사 즉 발전과정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역사-비교언어학자들은 언어자료(문헌)를 수집, 정리하고 이것을 토대로 비교방법(외적 재구방법)과 내적 재구방법을 적용하여 공통조어를 재구했으며 개별어를 고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음운변화 현상이 발견되었다.

비교방법은 음운변화를 확인하고 전단계의 어형을 재구하는 방법인데 친족관계의 가설과 규칙성의 가설에 근거를 둔다. 따라서 이 방법은 동일한 공통조어에서 파생되었다고 추정되는 언어에서 비슷한 뜻을 가진 어휘를 비교, 분석하여 음운대응 관계를 발견하고 이것을

토대로 하여 공통조어를 재구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 반면에 내적 재구는 언어의 공시적 기술에 필요한 자료에서 언어역사의 일부분을 추론하는 방법이다. 비교방법은 친족관계에 있는 여러 언어에 나타나는 형태소의 형태상의 상이성에 근거하나 내적 재구방법은 동일한 언어에서 어느 한 형태소의 변이형을 토대로 한다. 다시 말하면 형태론상으로는 서로 친족관계에 있으나 형태음운론상으로는 서로 다른 변이형이 내적 재구의 기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비교방법에서는 친족관계에 있는 형태소의 변이형은 한 형태소에서 파생되었고 변이형의 서로 다른 형태는 그 언어에 고유한 언어변화의 산물이라고 가정하는 데 반해서 내적 재구방법에서는 변이형태소는 원래의 형태가 아니며 대체로 한 번 또는 그 이상의 음운변화를 통해서 생성된 역사적 변천의 결과라고 추정한다. 역사-비교언어학자들은 내적 재구를 통해서 전단계 어형뿐만 아니라 공시적으로 변이형을 야기시킨 특수한 언어변화도 재구하려고 시도한다.

내적 재구방법은 언어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추정하는 작업이므로 이 방법을 적용하여 얻은 결과는 물론 비교방법에 의한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 비교방법의 목적은 이상적으로 완전한 공시체계를, 현실적으로는 음소재고 목록이나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문헌 이전 언어단계의 어형변화표 등과 같은 공시체계의 하위부분을 재구하는 데 있다. 언어의 역사적 발전단계는 비교방법에 의해서 재구되는 데 반하여 내적 재구방법을 통해서는 역사적으로 특수한 언어변화나 개별적인 어형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비교방법에서는 친족어의 형태소나 음운체계를 비교하여 공통조어의 음운체계나 형태소 목록을 재구한다. 그 반면에 내적 재구방법에서는 개별어의 특수한 음운형태를 야기시킨 음운변화를 추정한다. 그러나 내적 재구방법은 언어변화가 실제로 일어난 체계보다도 상위체계에 속하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언어를 재구하는 과정에서 내적 재구를 적용할 것인가 또는 비교방법을 적용할 것인가는 관계 언어자료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 알려진 친족어가 존재하지 않는 언어의 전단계의 역사가 연구대상이라면 유일하게 내적 재구방법만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친족어가 존재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비교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두 방법이 베타적인가, 어느 방법을 먼저 적용해야 하는가 또는 어느 방법에 의한 결과가 더 정확한가는 간단히 결정할 수 없는 문제다. 두 방법의 적용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느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두 방법을 적절히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여러 자매어중에서 어느 한 언어가 다른 자매어와는 다른 특수한 언어변화를 했다면 변이형태소중 어느 것이 더 오래된 형태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내적 재구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확증된 구형의 언어형태는 비교방법으로 전단계의 어형을 재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경우에 내적 재구방법이 선행되지 않으면 후에 당해언어에만 일어난 특수한 언어변화에 의해서 생성된 다수의 변이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

교방법을 적용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내적 재구가 언제나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이와는 반대로 비교방법이 선행되어야 할 경우도 많이 있다. 그 실례로서 슬라브어의 구개음화를 들 수 있다. 모든 슬라브어의 형태음운론 체계는 적어도 3 개의(혹은 4 개의) 개별적이면서 시기적으로 일정한 순서에 의해서 야기된 구개음화 현상의 결과를 잘 반영하고 있다. 슬라브어의 언어자료를 면밀히 고찰한다면 내적 재구방법만을 적용하여 대부분의 슬라브어에서 이러한 일련의 구개음화 현상을 간단히 재구할 수 있다. 그러나 또 한 편으로는 고대 교회슬라브어나 러시아어에는 구개음화되지 않은 자음으로 성립된 문현 이전의 슬라브어 음운체계를 재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충분한 자료가 있다. 만일 내적 재구 방법이 모든 슬라브어에 완벽하게 적용될 수 있다면 비교방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구개음화된 자음이 유사 이전의 슬라브어에서는 구개음화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내적 재구방법을 비교방법보다 먼저 적용하는 것이 이론상으로 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 모든 슬라브어의 음운체계에서 가장 현저한 변화는 구개음화 현상인데 여러 언어가 정해진 연대순으로 4 차례의 조건부 음운변화를 했다는 사실은 믿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언어 변화가 전단계 슬라브어의 시대나 늦어도 슬라브어가 방언으로 분기되던 시기에 일어났다고 추정하는 것은 문제의 성격상으로 보아 한층 더 타당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내적 재구방법이 비교방법의 선행조건이며 비교방법과는 연관관계가 없다는 방법론상의 가정은 슬라브어의 언어자료가 입증하듯이 잘못된 견해이다. 형태소의 변이형이 존재하지 않는 전단계어의 공시체계를 이론상으로는 재구할 수 있으나 전단계어가 실제로 재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공통조어의 변이형태소(또는 음운규칙)를 재구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제약을 실제로 받는 자연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에 비교방법과 내적 재구방법의 간단한 실례를 열거하겠다:

1) 비교방법

공통조어를 재구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인구어 개별어를 동시에 비교해야 하는데 비교할 때 개별어에 나타나는 이차적인 모든 요소(규칙적인 음운법칙에 의해서 야기된 음운변화)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다음의 예에서 알 수 있다(Krahe 1966, I. 35f.). 어휘 lat. *lōcus* < *alat. loucos* 'Hain', skt. *lākāḥ* (= *lōkás*) 'freier Raum, Platz', lit. *laūkas* 'Feld, das Freie' 와 ahd. *lōh* 'bewachsene Lichtung'는 모두 동일한 어원에 속한다. 모든 어휘에 자음 1과 *k*(음운법칙에 의해서 ahd. *h* < *k*)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어말의 *-s*는 게르만어에서는 음운법칙에 의해서(중간단계를 거쳐서) 소멸되었다(ahd. *fisk*/lat. *piscis*, ahd. *gast*/lat. *hostis*). 고대 인도어, 라틴어와 리투아니아어에서는 마지막 음절모음이 보존되어 있다. 그러나 게르만어에서는 마지막 음절모음은 말음법칙에 따라 일찌기 소멸되었다. 고대 인도어와 리투아니아어에서 마지막 음절모음 *a*는 서로 일치하나 그 출처는 분명하지

않다. Skt. a는 a, e 또는 o로 소급되나 lit. a는 a 또는 o로만 그 출처가 소급되므로 e는 이들 어휘의 인구어 공통조어의 재구에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a 와 o의 두 모음중에서 공통조어의 말음절 모음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에 대응하는 라틴어의 모음은 o(후에 u로 변함)이다. 그러므로 이 단어들의 공통조어에서 모음 o가 마지막 음절모음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어근모음의 재구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 Skt. ð는 au, eu 또는 ou에서, lit. aū도 skt. ō와 같이 새 이중모음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공통조어에서 어근 모음을 결정하기가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lat. ou는 이중모음 eu와 ou로만 소급되기 때문에 이 경우 au는 공통조어의 어근모음으로서는 제외된다. 그 반면에 ahd. ö는 au와 ou에서 파생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au는 공통조어의 어근모음으로서는 고려될 수 없기 때문에 개별어에서 공통조어의 어근모음으로 적합한 모음은 ou인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이들의 공통조어는 *loukos로 재구되며 원래의 뜻은 'Lichtung, Waldblosse'이다.

이상에서 논술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Krahe 1970, 41):

alat. loucos 'Hain'	1	eu ou	k	o	s
skt. lokás 'freier Raum, Platz'	1	au, eu ou	kʷ, k	a, o, e	s
lit. laoūkas 'Feld, das Freie'	1	au, eu ou	kʷ, k	a, o	s
ahd. loh 'bewachsene Lichtung'	1	au, ou	k	—	—
idg. *lōukos 'freie Feld, bewachsene Lichtung'	1	ou	k	o	s

2) 내적 재구방법

Grassmann의 법칙

Grassmann(1863)은 Grimm의 법칙중 둘째의 예외현상을 비교방법에 의해서 규명하려고 시도했으나 그보다는 산스크리트와 희랍어에서 각각 그 유형을 비교 즉 내적 재구방법에 의해 고찰함으로써 이 문제해결의 결정적인 증거를 얻을 수 있었다. 게르만어, 산스크리트, 희랍어 등의 어형을 비교방법에 의해서만 고찰한다면 이 가운데 어느 어형이 분기 직전까지 속해 있었던 공통적인 언어단계에 더 가까운 것인지를 결정할 수가 없다. 희랍어와 산스크리트에서는 특정의 위치에서 공통조어와는 대조적으로 유기음과 파열음 사이에 교체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변화가 개별어에서 일어난 사실은 희랍어와 산스크리트의 반복동사(현재완료)의 형태에 의해서 입증된다. 이 언어에서 유기음이 내포된 어근이 반복될 때 skt. *ba-bhū-va 'er ist geworden', gr. *pé-phū-ka(phū에서) 'entwickeln'에서와 같이 산스크리트의 b는 유기유성파열음 그러나 희랍어의 p는 이에 대응하는 무성음이다.

따라서 이 두 언어에서 기식의 소멸은 서로 독자적으로 일어난 변화임에 틀림없다. 반복동사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과 개별어 그 자체의 언어자료를 토대로 skt. **bha-bhū-vā* 및 gr. **phei-phū-ka*(skt. *da-dau*와 gr. *dé-dō-ka*의 유형을 모델로 함)를 재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어형은 희랍어와 산스크리트의 문헌에서 찾아볼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이 두 언어에서는 인접음절에 나타나는 2 개의 유기음중 하나는 이화작용에 의해서 그 기식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음운법칙을 Grassmann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정의하면 두 연속되는 음절에서 각 음절의 첫음이나 한 음절내에서 첫음과 말음의 위치에 나타나는 두 유기음중 그 첫째 유기음은 기식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다른 어족과는 달리 인구어가 가지고 있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인은 인구어를 재구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Schlerath 1973, 6):

(1) 인구어 개별어는 서로 너무 밀접한 친족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재구는 높은 언어사적 공신력을 갖는다.

(2) 인구어 개별어는 최초의 문헌이 나타난 시기에는 그 형태가 서로 비슷하므로 언어요소나 문법규칙을 완벽하게 재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재구된 요소나 규칙을 공시적으로 배열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다.

(3) 인구어 개별어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또 재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나토리아어(특히 히타이트어), 인도어, 이란어, 희랍어, 이태리어 등은 서로 언어상의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재구하는 데 적어도 언어간섭현상을 염두에 둘 필요가 없다.

인구어는 이러한 좋은 재구의 전제조건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하게 공통조어를 재구할 수 있고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재구된 공통조어가 실제로 서로 일치됨을 볼 수 있다. 공통조어의 재구는 개별어에 현존하는 인구어 모체가 되는 언어에서 계승된 언어상의 특성에 기반을 두며 공통조어를 재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개별어의 음운법칙이다. 음운법칙은 시간적으로 연속되는 서로 다른 언어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유도해 낼 수 있는데 문헌을 통해서 입증이 가능하다. 문헌 이전의 음운법칙은 개별어간의 음운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재구된다.

재구의 방법이 아무리 정확하고 정교하다고 할지라도 재구된 어형은 실제로 사용되었던 언어 그 자체는 아니고 완전히 추상적인 성격을 지니며 원칙적으로 한정된 일정한 범위내에서만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어떤 언어를 재구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그 언어의 음소 목록(음소의 실현이 아님)과 형태소 목록을 재구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언어의 하위단위인 음소와 형태소로부터 어휘나 문법상의 형태를 생성할 수 있는 규칙을 재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규칙을 근간으로 하여 통사론상의 원칙을 유도해 낼 수 있다. 예를 들면 형태소 **k^hleu-‘hören*’, 접미사 -os-, 그리고 강세된 e-계제의 어근에 접미사 -os-가 첨가되면 중성명사가 된다는 규칙을 재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확인된 규칙을 적용해

서 재구된 어형 *^hk^léwos-는 gr. kléos와 skt. śravas-와 같은 단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재구된 언어 요소에 기초를 둔 하나의 가상적인 어형에 불과하다(ibid. 5). 그리고 또 이러한 규칙에는 엄격한 제약이 따르는데 재구된 언어 규칙이 어느 일정한 시기에 규칙적으로 작용했는지의 여부는 확증하기가 어렵다.

4. 역사-비교언어학에 대한 평가와 비판

인구어 역사-비교언어학은 라틴어에서 파생된 로만스어의 연구에서 비롯되었는데 주로 19세기 독일의 학자들에 의해서 큰 발전을 보게 되었다. 역사-비교언어학자들은 언어를 시간적으로 발전하는 통일체로 간주하고 현재의 어형을 토대로 해서 과거나 미래의 어형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언어를 사용하는 일반 대중이 감지할 수 있는 유일한 실체는 언어의 공시성인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통시적인 면만을 치중하여 언어를 형성하는 일련의 사항만을 인지할 수밖에 없으므로 언어의 체계성을 무시하고 개체성만을 강조한 것은 역사-비교언어학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비교언어학자들은 자연과학적인 방법으로 언어의 형태만을 연구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언어는 형식적, 음성적 개체로 격하되었다. 물론 언어를 개인적인 언어 활동(생성 + 해석)의 총화로 간주하는 실증주의적인 연구방법론을 주축으로 하는 역사-비교언어학자들의 언어이론은 언어를 인간으로부터 분리해서 분석적으로 취급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분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의 수단임을 알아야 한다.

Curtius는 젊은이문법학파의 언어연구 방법을 빗나간 자연과학의 모방이라고 혹평하면서 언어학을 사적인 정신과학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Saussure에 의하면 역사-비교언어학자들은 언어연구에 공시적인 면과 통시적인 면을 혼동했으며 연구대상의 성격을 파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언어 친족관계의 비교에 관해서 중요성을 인정했으나 그 의의를 찾지 못했다.

19세기 역사-비교언어학의 연구대상은 비록 인구어에 제한되기는 했으나 체계화된 지식과 풍부한 자료축적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현대언어학의 토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언어학을 독자적인 학문으로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언어학이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됨에 따라 역사-비교언어학 이론을 개별적인 주제와 결부시켜 실증주의 연구방법론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신이상주의의 여러 측면에서 전개되었다. 그 결과 언어형태보다는 언어내용에 관한 연구가 강조되었다.

역사-비교언어학자들이 통사론, 의사소통에 관한 문제 등 언어의 중요한 면에 관한 연구를 등한시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들의 가장 큰 과오는 20세기 초반 언어학의 중요한 연구과제로 등장하기도 한 언어와 정신 그리고 언어와 사회 간의 유대관계를 설명하는 포괄

적인 언어이론을 정립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Herbst et al. 1979, 12).

그러나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언어사실만을 귀납적으로 고찰하는 실증주의적 연구방법은 20세기 초기에 과학적인 지식의 축적과 특히 여러 학문분야에 수학적 사고의 확산으로 인하여 점차적으로 연역적 연구방법으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역사-비교언어학자들도 언어연구의 목적, 연구방법, 실제적인 언어분석 등에 관해서 새로운 이론을 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동시언어학에서 공시언어학으로의 방향전환의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은 Saussure의 구조주의언어학이다. 그는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1916)에서 언어학의 연구대상을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인지했고 새로운 설명의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기호개념을 철학적으로 분석한 Husserl의 이론을 기초로 하고 심리주의를 배격함과 동시에 사회현상은 개인을 구속하는 외재적 집단현상으로서 객관적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Durkheim의 사회학적 방법론의 영향을 받아 언어를 사회적 사실이라고 정의했다. 따라서 Saussure에게는 언어는 사회적인 것임과 동시에 기호의 체계였다. 그는 언어를 고찰함에 있어서 모든 언어외적 요소를 배제하고 언어를 내적 관련체계로 간주함으로써 역사-비교언어학은 물론이고 그 당시 모든 다른 언어이론을 극복한 셈이다. 동시에 그는 형식적 분석주의, 언어외적인 선형주의를 축출하고 언어를 언어로서만 이해하려는 언어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그의 기호개념은 무엇보다도 구조주의언어학에서 실현되었으며 구조주의언어학은 현재 가장 널리 알려진 공시언어학이다.

5. 결 론

학자들은 그 시대의 철학적 사고를 근간으로 하여 그들에게 관심이 있고 또 한편 설명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연구대상을 선정하고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선택된 연구대상을 체계적으로 분석, 비판하여 학문의 이론을 정립한다. 역사-비교언어학자들은 그들의 연구대상인 언어(특히 언어변화)를 경험적 방법으로 연구했다.

Bopp와 바로 그의 후계자들은 공통조어를 재구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언어비교를 통해서 순수하고 완벽한 인구어의 원시적 형태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고 이러한 형태를 찾아내는 데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 결과 인구어 개별어의 변화에 관한 고찰이 중시되었다. 공통조어의 재구를 처음으로 시도한 언어학자는 Schleicher인데 그는 공통조어를 재구하기 위해서 현존하는 언어자료에 의존했다. 다시 말해서 초기 역사-비교언어학자들의 연구방법론과 낭만주의 철학의 언어관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그들의 비교방법²⁰⁾은 언어가

20) 비교방법은 19세기 초기에 언어학 외에도 다른 분야에서 특히 비교해부학에서 사용되었는데 비교해부학이 언어학에 영향을 끼쳤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Bopp와 Schlegel이 파리에서 산스크리트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었을 때 Cuvier의 이론을 접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유기체이고 문헌에 나타나는 어형에 순수한 원형의 유사성이 약간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그 이유는 가장 적게 파괴된 어형 즉 가장 오래된 어형간의 비교에서 공통조어의 본질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비교언어학자들은 공통조어를 재구하는 데 언어형태의 비교만을 통해서는 완벽을 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들은 공통조어의 재구를 위해서는 동계어의 문법적 구조의 형식적 유사성보다는 어근의 유사성 즉 어근의 의미와 문법적 기능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따라서 그들은 어근의 형태변화를 야기시킨 음운변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동계어간 음운변화의 규칙성은 1818년 Rask에 의해서 처음으로 발견되었는데 Grimm이 이것을 1822년에 하나의 법칙(Grimm의 법칙)으로 체계화했다. 그 결과 음성학이 역사-비교언어학의 핵심적 연구분야로 부상했으며 1976년 Winter의 법칙에 이르기까지 40여 개의 음운법칙이 발견되었다.

음운법칙은 형태에 관한 비교를 한층 더 확고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방법론의 토대가 되었다. 음운법칙의 발견과 더불어 공통조어의 음운체계와 어근의 재구가 구체화되었으며 그 결과 그들의 연구대상이 형태론에서 어원론까지 확대되었다. 음운법칙은 형태적 유사성과 같이 비교의 기준을 제공했고 공통조어 재구의 지침이 되었다. 그러나 초기 역사-비교언어학자들은 음운법칙의 규칙성에 관한 원인을 설명할 수는 없었다.

Schleicher와 Curtius 등 제2세대의 역사-비교언어학자들은 언어연구 방법은 음운변화의 규칙성에 관한 가정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들은 그들의 방법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음운변화의 규칙성을 설명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Schleicher는 음운변화는 조음작용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지만 인구어 초기단계에서는 강력한 언어감각 때문에 음운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9세기 후반기에 짚은이문법학파가 형성되었고 그들의 이론을 그들의 학술지인 *Morphologische Untersuchungen auf dem Gebiete der indogermanischen Sprachen*(1876-1910=6Bde.)에 주로 발표했다. Osthoff와 Brugmann(1878 iii ff.)이 그 첫 호에서 음운법칙에는 예외가 없고 음운은 동일한 환경에서는 언제나 동일하게 변화하며 어휘 또는 문법상의 실체로서 특수한 단어들의 유추적인 창조나 변화는 인구어의 유사 또는 유사 이전의 모든 시대에 균일하게 존재하는 언어변화의 보편적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에 의하면 어느 한 음운법칙이 작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다른 음운법칙이 이미 작용을 했거나 유추작용 때문이다.

짚은이문법학자들은 음운법칙과 유추작용의 두 원칙에 의해서 모든 언어변화를 설명하려고 시도했고 불규칙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유추작용을 대단히 중요시했다. 그러나 방법론에 관한 한 유추작용은 부가적인 설명원칙에 불과했다. 예컨대 그들이 예외적인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유추작용을 적용했다. 그들과 그들의 선임자 사이에 방법론적 유사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초기 역사-비교언어학자들은 언어변화(언어의 퇴화)의 법칙적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음운변화의 규칙성을 가정했고 언어가 변화하기 이전에 존재했던 순수한 어근의 형태와 의미를 재구하기 위해서는 예외적인 변화를 인정했다. 짧은이문법학자들의 목적은 변화 이전의 가상적인 원시상태의 공통조어가 아니고 개별어의 문헌을 근간으로 하여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인구어를 재구하는 데 있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공통조어의 원형이 무엇이었으며 그것이 어떻게 변화했느냐가 아니고 그들이 문헌을 토대로 재구할 수 있는 공통조어는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변화했느냐가 핵심문제이었다.

넓은 의미에서 유형론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사-비교언어학의 이론과 연구방법은 이론적으로나 실제 적용면에서 가장 진보되고 완벽한 언어연구 방법 중 하나이다. 이 방법을 적용해서 언어변화에 관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었고 공통조어의 재구와 언어의 계통적 분류가 가능하게 되었다. 음운법칙 개념의 도입과 더불어 언어학의 비과학적 마지막 단계가 극복되었고 역사 비교언어학이 현대언어학 정립의 초석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참 고 문 헌

김윤한. 1988. 인구어 비교언어학. 민음사.

Amirova, A/O'chovikov, A./Rozdestvenskij, V. 1980. *Abriss der Geschichte der Linguistik*.

Ins Deutsche übersetzt von B. Meier. herausgegeben von G. Meier.

Amsterdamska, O. 1987. *Schools of Thought*. Dordrecht/Boston/Lancaster/Tokyo.

Bopp, F. 1816. *Über das Conjugationssystem der Sanskritsprache in Vergleichung mit jenem der griechischen, lateinischen, persischen und germanischen Sprache*. Frankfurt a.M.

Brugmann, K./Delbrück, B. 1897-1916. *Grundriss der vergleichenden Grammatik der indogermanischen Sprachen*(Bd. I und II: Laut, Stammbildungs-und Flexionslehre der indogermanischen Sprachen). Bd. III-IV von Delbrück 1893-1900. *Vergleichende Syntax der Indogermanischen*. Strassburg.

Grassmann, H. 1863. "Über das Aspiration und ihr gleichzeitiges Vorhandensein im An- und Auslaut der Wurzel." in Zeitschrift für vergleichende Sprachforschungen (=Kuhns Zeitschrift)

Grimm, J. 1818. *Deutsche Grammatik*. Göttingen.

Herbst, Th./Heath, D./Dederding, H. 1979. *Grimm's Grandchildren. Current topics in German linguistics*. London and New York.

Krahe, H. 1966. *Indogermanische Sprachwissenschaft*. I. Lautlehre. Berlin.

- Krahe, H. 1970. *Einleitung in das vergleichende Sprachstudium*. Innsbruck.
- Leskien, A. 1876. *Die Deklination in Slavisch-Litaunischen und Germanischen*. Leipzig
- Meillet, A.-Printz, W. 1909. Dt. *Einführung in die vergleichende Grammatik der indogermanischen Sprachen*. Leipzig/Berlin.
- Paul, H. 1880. *Prinzipien der Sprachgeschichte*. Tübingen. [9. Auflage 1975.]
- Pott, A. 1833-36. *Etymologische Forschungen auf dem Gebiete der indogermanischen Sprachen*. Lemgo.
- Rask, R. 1916. *Undersogelse om det gamle Nordiske eller Islandske Sprogs Oprindelse*. Copenhagen.
- Saussure, F. 1916.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Bally, C./Sechehaye, A.(Hrsg.). Paris/Lausanne.
- Schlegel, F. 1808. *Über die Sprache und Weisheit der Indier*. Heidelberg.
- Schleicher, A. 1861. *Compendium der vergleichenden Grammatik der indogermanischen Sprachen*. Weimer.
- Schlather, B. *Die Indogermanen*. 1973. Das Problem der Expansion eines Volkes im Lichte seiner sozialen Struktur. Innsbruck.
- Schrader, O. 1883. *Sprachvergleichung und Urgeschichte*. Linguistisch-historische Beiträge zur Erforschung des idg. Altertums. Jena.

《Zusammenfassung》

Untersuchungen zu Methodik und Rekonstruktion der Ursprache in der historisch-vergleichenden Sprachwissenschaft.

Youn-Han Kim

In der Situation, in der die Aspekte der Heterogenität und Dynamik natürlicher Sprachen und damit ihre Historizität zunehmend an Interesse gewinnen, scheint es sinnvoll, sich derjenigen Impulse zu vergewissern, die trotz des Vorherrschens synchronischer Theorie und Praxis die Entwicklung einer diachronischen Sprachwissenschaft bestimmt haben. Die Geschichte der Sprachwissenschaft kann als Folge von Versuchen verstanden werden, dem jeweiligen Erkenntnisinteresse entsprechende Aspekte von Sprache herauszuarbeiten und sie ohne Berücksichtigung anderer Aspekte zu beschreiben.

Erst im 19.Jhs. beginnt die Sprachwissenschaft als selbstständige Einzelwissenschaft zu etablieren, nachdem sich die Sprachwissenschaft von der Philosophie und Philologie löste. Die historische Methode sowie die Orientierung an den Naturwissenschaften waren kennzeichnend für die beginnende Sprachwissenschaft. Die Sprachwissenschaft der 19. Jhs. hatte ihre wissenschaftliche Qualität mit ihren historischen Methode begründet. Das bedeutet eine Aufwertung der Empirie und der induktiven Methode der Sprachbeschreibung.

Das Verhältnis von empirischer Forschung und theoretischer Bedeutung war in der diachronischen Sprachwissenschaft des 19.Jhs. von Beginn an unausgewogen. Als Theorieersatz fungierten zunächst teleologische Deutungen der Sprachentwicklung sowie Übernahme naturwissenschaftlicher Forschungsparadigmen. Die rasch wachsende Menge empirisch ermittelter Daten verlangte jedoch zunehmend nach theoretisch begründeter Systematisierung und Erklärung. Die Theorie des Sprachwandels, die sich dann im letzten Drittel des 19.Jhs. herausbildete, basiert noch weitgehend auf Generalisierungen über diesen Daten.

Das Hauptziel dieser Arbeit liegt in der kritischen Analyse der Untersuchungsprinzipien und Methodik der Rekonstruktion der Ursprache in der historisch-vergleichenden

Sprachwissenschaft. Der Autor hat sich dabei besonders bemüht, durch die systematische Beschreibung der Prinzipien und Methodik die Probleme der genealogischen Klassifikation der indoeuropäischen Sprachen und ihre Rekonstruktion der Grundsprache aufzuzeigen.

Bei der Ermittelung der substantiellen Verwandtschaft kann man sich sowohl der Analyse der sprachlichen Formen in Bezug auf ihre Bedeutung als auch der Analyse der Bedeutungen in Bezug auf die entsprechende Form bedienen. Beide Verfahrensweisen ergänzen sich gegenseitig und können einander verifizieren. Diese Ermittlungen beruhen auf Konfrontationen lexischer, semantischer und grammatischer Systeme von zwei und mehr Sprachen. Da es aber in der Regel zwischen Einheiten, die in den herangezogenen Sprachen vorhanden sind, keine eindeutigen Entsprechungen gibt, kann die Feststellung der Korrespondenzen zwischen den Einheiten der jeweiligen Sprachen nur auf dem Wege systemgezogener Ähnlichkeitsermittelungen erfolgen. Das Resultat einer solchen Vergleichung ist dann die Basis für die weitere Vergleichung. Auf diese Weise entwickelt sich das Verfahren gewissermassen aus sich selbst.

Das Prinzip, Systeme über ihre Elemente miteinander in Verbindung zu bringen, soweit sich diese Elemente nach etymologischen Kriterien zusammenfassen lassen, schafft die Möglichkeit, Systeme zu vergleichen. Das Bild, das durch die Etymologien einer Sprache entsteht, liefert einen Überblick über die semantischen Verbindungen dieser Sprache mit den ürigen Sprachen. Die Erforschung der substantiellen Verwandtschaft impliziert auch eine Reihe von Verfahrensweisen, die sich untereinander in einer rekursiven Beziehung befinden.

Die Verknüpfung der Verfahrensweisen lässt sich über die Aufstellungen von Rekonstruktionen erreichen. Schleicher verwendet zum ersten Mal die Methode der Rekonstruktion eines ursprachlichen Zustandes als Formensystem. Dabei wendet er dem systematischen Vergleich des lautlichen Baus der einzelnen indoeuropäischen Sprachen grosse Aufmerksamkeit zu und ist gleichzeitig um die Rekonstruktion ihres Ausgangszustandes bemüht. Die erhöhte Aufmerksamkeit, die Schleicher den Lautentsprechungen widmete, führte zu einer von ihm vorgenommenen Präzisierung der Kriterien der Verwandtschaftsbestimmung der Sprachen. Diese Kriterien werden nun aus der Identität des Lautmaterials innerhalb des Bestandes der lexischen und grammatischen Einheiten abgeleitet.

Die Rekonstruktion stellt eine theoretische Beschreibung eines bestimmten

sprachlichen Systems dar, auf welche die betreffenden Sprachen zurückgeführt werden. Eine Rekonstruktion setzt die Ermittelung so vieler Systeme voraus, als Divergenzpunkte in Beziehungen zwischen den sprachlichen Subsystemen der Lexik, Morphemik, Grammatik, Phonemik in Betracht gezogen werden müssen.

Das wichtigste Kriterium für die genealogische Klassifikation und für die Rekonstruktion sind die phonetischen Entsprechungen und die auf ihnen aufbauenden Lautgesetze. Mit Hilfe der Gesamtheit der Lautgesetze kann die Ausdrucksseite von zwei zum Vergleich herangezogenen Sprachen aufeinander abgebildet werden. Aber die Aufdeckung und Beschreibung der Lautgesetze ist bis heute noch für keine Sprachfamilie vollkommen.

Die Einteilung in die einzelnen Verfahrensweisen in der hier vorgenommenen Art ist rein theoretisch. Sie beruht auf der Ausgliederung der Objekte der Analyse des empirischen Materials, das jeweils untersucht werden soll.

Mann kann die Entwicklung der Forschung schematisch in der Aufeinanderfolge von Verfahrensweisen wie folgt darstellen: 1. Etymologie → 2. lexische Entsprechungen → 3. Entsprechungen in Wurzeln und Affixen → 4. Entsprechungen der grammatischen Systeme → 5. Lautentsprechungen → Lautgesetze.

Dies genügt, um zu überzeugen, daß die vergleichend-historische Sprachwissenschaft ein kompliziertes theoretisches Gebäude darstellt, das eine rein auf innersprachlichen Faktoren beruhende Interpretation der sprachlichen Divergenz möglich macht.

Das gezeigte Schema der Verfahrensweisen kann im Zusammenhang mit der Interpretation der Abzweigungen vom Stammbaum verwandter Sprachen ausgelegt werden. In diesem Falle erscheint bekanntlich die Systematik der Sprachen als eine sukzessive Aufspaltung eines breiten Kontinuums der Sprachen in immer kleinere Gruppierungen. Dies ist die Basis der genealogischen Klassifikation der Sprachen in ihrer prinzipiellen Form.